가정상담

2023 12
통권 484호

특집
이태영 선생님 25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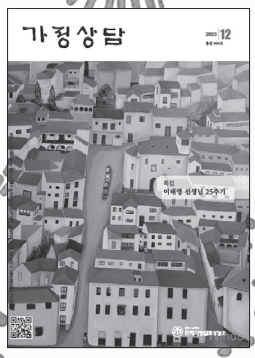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LETTER · ISSN 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태영 선생님 25주기에

◀ 상담소 앞 노제

▶ 1998년 12월 21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시다.



4 • 이달의 메시지
6 • 특집 | 이태영 선생님 25주기를 맞아
16 • 특별기획 |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⑫
22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㊿
23 • 가정폭력상담실
26 • 어떻게 할까요
29 • 좋은 책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30 • 결혼과 인생(235) 영화 이야기
파벨만스 _ 김용언
32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6 • 소송구조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 전화 1644-7077 • 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23. 12.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 표지글씨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 표지그림 **이현혜** 평생회원 〈여행의 추억, 2019년 스페인〉

창조적이며 발전적인 계승을 생각하며

이태영 선생님 그리고 상담소의 미래에 대하여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상담소의 한 해는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이 잠들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찾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평안하시라고 마음을 담아 깊이 고개 숙이며, 선생님이 안 계신 상담소가 올해도 이렇게 번민하는 이웃들과 함께, 우리 사회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위해 지내왔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국립현충원을 떠날 때면, 며칠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의 한 해는 이렇게 지났고 이제 새해를 어떻게 잘 지내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가신 지 벌써 25주기가 되었고, 선생님이 우리 사회에 남기신 상담소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정, 모든 가족 구성원의 삶과 복리를 위해 그들과 함께 굳건히 서 있습니다.

상담소의 기둥인 법률구조사업, 가족법개정운동,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은 물론 조사 연구와 출판 홍보에 이르기까지 창설 70년을 목전에 둔 상담소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추어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상담을 시작한 점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의 창립 60주년 행사에 다녀오면서도 선생님을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 상담소 창설 초기부터 가정문제를 전담할 가정법원 설치를 제안하였고, 상담소 창립 30주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가정법원의 전국 설치를 주장하셨으니 이러한 통찰은 지금 보아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상담소는 이러한 선생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대로 이어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처음 선생님이 시작하셨던 지부 설치 사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모든 이들을 위해 그리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이념을 실천하고자 선생님이 각별하게 마음을 쓰신 부분이 농어촌 산촌을 망라한 전국 지부 설치 사업이었습니다. 상담소의 지부는 전국 지역사회의 뜻있는 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지부를 설치하고 본부와 같은 법률구조사업을 그 지역에서 펼치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부들이 일정 기간 이후에는 지역 안에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부와 지부 관계는 법적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이 아니어서 문제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상, 좋은 취지, 인간적인 유대로 시작하여 발전해 왔던 상담소의 지부 설치 사업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법과 제도로 규율되지 않으면 이어갈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몇 년에서 수십 년까지 상담소 지부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에서 법률구조사업을 펼쳐 왔던 지부들은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적응하기까지 많은 아픔을 겪었으며 결과적으로 본부와 지부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까지 지부는 지부대로 본부는 또 본부대로 많은 난관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상담소의 옛 지부들은 지난 역사를 바탕으로 상담소와 더 긴밀한 업무협력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무리 없는 법률구조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사업을 펼치는 법률구조기관으로써 법적, 제도적으로 순리에 맞게 제 자리를 찾게 되었으니 아쉬운 가운데에도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도 선생님이 남기신 상담소 역사가 창조적이며 발전적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상담소의 법률구조 사업은 활발하게 잘 진행되었고, 선생님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러한 마음을 전하며 상담소 창립 67주년의 해를 보내고, 새로이 68주년의 해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소송구조는 물론 화상상담이나 비혼모 캠프, 다양한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 등 상담소 법률구조 사업은 이태영 선생님의 뜻을 따라 이어온 상담소의 뿌리 깊은 역사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가정, 가족 구성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 모든 가정, 모든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가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특집

이태영 선생님 25주기

영원히 기억하는 이태영 선생님

40년을 400년처럼 헌신한 선생님의 일생,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선생님의 높은 뜻과 이상이 잘 이어지도록 더 많이 노력해서 상담소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올해로 상담소 창설자이신 이태영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1914년 평북 운산에서 태어나 이화여전과 서울 법대를 졸업하시고 1952년 고등법원 사법과에 합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당시 6.25 전쟁 직후 남녀차별과 가난의 굴레에서 신음하던 여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구세주를 만나는 심정으로 여성 변호사인 선생님께 몰려왔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법률상담이란 말도 생소하던 1956년 그 시절에 선생님은 "나는 법과 인습에 우는 한국 여성과 평생 눈물 흘릴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인 여성법률상담소를 창설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존엄과 법 앞에 만인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가난하고 억울하고 불행한 약자의 편에 서서 40년을 400년처럼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선생님의 헌신과 지휘 아래 1966년, 10주년을 맞은 상담소는 사단법인 가정법률상담소로 독립하고 1987년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1호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10주년을 맞으면서 폭증하는 사건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자 선생님은 "여자 변호사 혼자 시작한 사업이지만 이 일은 사회, 국가가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며 법률구조 사

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시고 후원회원 모집에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나아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회관 건립을 추진하셨습니다. "뜻으로 세우는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여성의 집"을 목표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교포 상대로도 모금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포 모임에서는 "나 죽은 뒤 보낼 꽃값을 미리 건축비로 내달라"고까지 하셨다고 하니 지금도 울컥합니다.

이렇게 1976년 벽돌 15만 장을 쌓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할 여성백인회관을 신축하였고, 선생님은 그동안 구상하셨던 새 사업들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법의 생활화를 위한 각종 법률강좌, 가정의 평화를 위한 각종 교육과정, 야간상담, 무료 결혼식 등 활발한 활동이 이어졌으며 조사·연구와 출판·홍보, 여성·가정· 법률 전문 도서실 운영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듯 선생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행동한다는 신념으로 샘솟는 창의력을 보여주셨고, 없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개척자답게 하룻밤 사이에 한 가지씩 사업을 고안해 내셨습니다.

또한 여성백인회관이 노후되면서 2008년 저희 제자와 후배들은 여성백인회관 자리에 지상 10층, 지하 4층의 새 회관을 지어 재정의 기반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상담소 창설과 더불어 선생님의 크신 업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가족법 개정입니다. 선생님은 시대착오적 가부장제와 남녀차별의 가족법 개정을 위해 제정 당시부터 세 차례 개정을 이루기까지 여성단체, 시민 · 사회단체와 전국적 연합체를 조직하여 선두에서 투쟁하셨습니다.

1990년 세 번째 개정 직후 "가족법 개정은 창조된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 오백 년 묵은 인간 차별의 벽이 무너졌으나 아직 남은 두껍고 뿌리 깊은 호주제도 깨끗이 바로잡을 것"이라는 소회를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저희 제자 후배들은 2005년 드디어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내고 호주제 폐지를 이루었습니다.

선생님은 기도 중에 받은 '정의의 변호사, 인권의 변호사, 우는 자의 사도, 평화의 사도가 되라'는 뜻을 받들며 평생을 사셨습니다. 암울한 역사의 현장,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인권이 유린 되며 불의가 득세하는 곳에는 언제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유신 시절 3.1 민주구국선언에 동참하시어 부군 정일형 박사와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셨고, 1980년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살벌한 계엄군사법정에 피고인의 증인으로 증언대에 서신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선생님은 민주화 투쟁에도 행동하는 양심의 투사이셨습니다.

건강 악화로 소장직을 떠나시던 날 "모든 사물을 상담소와 가족법 개정의 안경을 쓴 눈으로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이 일은 내가 태어나 살면서 배운 그대로 하고 싶었던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힘없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하늘의 뜻인줄 알고 시작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지탱해 온 이 사업은 그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고별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신 지 4반세기 동안 저희는 힘에 부칠 때마다 선생님이 절절히 그리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저희는 상담소를 지켜오면서 앞으로 저희보다 더 명민하고 유능한 후배들에게 선생님의 높은 뜻과 이상을 물려주어 상담소의 80주년, 100주년을 쌓아 가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많은 걱정과 근심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2023년 11월

차 명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사장

걸어오신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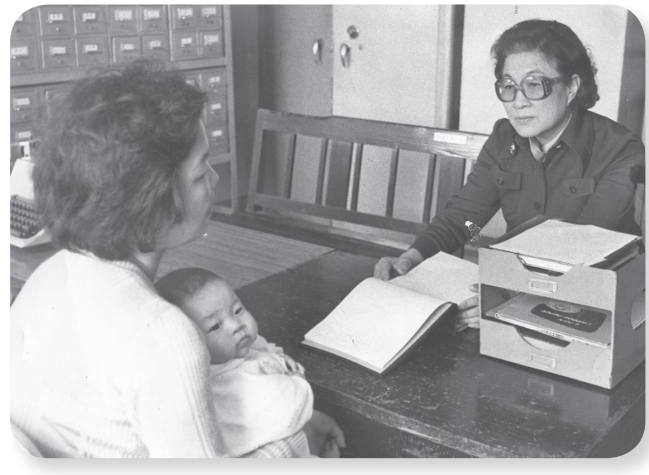
1914. 8. 10. 평안북도 운산군 북진읍 진동에서 태어남.
1931. 평양 정의고등보통학교 졸업. 북진읍 광동보통학교 교사로 재임.
1936. 이화전문학교 가사과 수석 졸업. 평양고등성경학교 교사로 부임. 정일형 박사와 혼인.
194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194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52.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이승만 대통령의 판사 임용 거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됨. 가족법 개정운동 시작.
1956. 여성법률상담소 창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권옹호상 수상.
1957.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이혼제도연구」로 법학석사 학위 받음. 미 국무성 초청으로 1958년까지 미국 사법제도를 시찰하고 남가주감리교 법과대학에서 수학.
1958. 세계여류법률가협회 부회장이 됨. 『가정법률상담실기』 펴냄.
1962. 가정법원 설치를 제안.
1963. 가사심판법 기초위원으로 활동.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겸 학장으로 부임. 루스벨트 여사 자서전 『나 홀로 걷는 길』 번역, 발간.
196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와 함께 법률임상교육 실시. 가족법학회 부회장.
1969.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이혼연구」로 법학박사 학위 수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기초 발기위원. 새싹회 장한어머니상 수상.
1970.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 국제법률구조연합회 이사와 부회장 역임.
1971. 제1회 법을 통한 세계평화상 수상.
1972. 세계변호사회에 참석, 50년 역사상 여자 변호사로서는 최초로 개회사를 함. 제4회 법률문화상 수상. 『여성을 위한 법률상식』 발간.
1973. 세계여자변호사회 부회장에 피선.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부회장으로 활동.
1974 『현대여성의 모랄』 발간.
1975. 막사이사이상 사회지도 부문 수상.
1976. '여성백인회관' 건립.
1977. 명동 3 · 1사건으로 변호사 자격 박탈.
1978. 세계법률구조상 수상.
1979. 『행복의 발견』, 『북한의 여성에 관한 연구』 발간.
1980. 변호사 자격 회복. 국제소롭티미스트로부터 '여성을 돕는 여성에게 주는 상' 수상.
1981. 미국 드류대학에서 정일형 박사와 함께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 받아, 국제법률가위원회 위원으로 피선. 『북한의 여성생활』, 『차라리 민비를 변호함』, 『한국의 이혼율 연구 I 』 발간.
1982. 유네스코의 81년도 인권교육상 수상.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공저) 발간.
1984. 세계감리교 평화상 수상.
1985. 유엔세계여성대회 강연. 『쪽박으로 한강물을』 발간.
1986. 국제법률가위원회 부회장에 피선. 이화여자대학교 100주년 기념 공로표창장 수상.
1987. 『여성으로 태어나서』, 『한국의 이혼율 연구 II 』 발간.
1988. 『북한여성』 발간.
1989. 통일원 고문. 브레넌 인권상 수상.
1990. 국민훈장 무궁화장, 여성전문인상 수상.
1991. 용신봉사상 수상. 제1회 자랑스런 서울대인에 선정. 『나의 만남, 나의 인생』 발간.
1992. 평양에서 열린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참석. 3 · 1문화상 수상.
1993. 세계감리교총회 강연.
199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퇴임. 제1회 자랑스런 이화인상 수상.
1998. 춘강상 여성지도 부문 첫 수상자가 됨.
1998.12.17. 영면.

사진으로 보는 이태영 선생님

▲ 1952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이승만 대통령의 판사 임용 거부, 우리 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됨. 가족법 개정운동 시작

▲ 1969년 상담소에서 어제의 상담 활동을 살펴보며

▲ 기도로 여는 상담소의 아침 회의



▲ 번민하는 이웃을 위한 상담

▲ 1975년 막사이사이상 사회지도 부문 수상

▲ 1976년 5월 10일 여성백인회관 기공식

▲ 1977년 10월 5일 여성백인회관 개관

▲ 1977년 10월 11일 여성백인 회관 개관 및 상담소
21주년 기념 강연회

▲ 1977년 12월 상담소를 찾기 어려운 서울 외곽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순회상담 시작

▲ 1984년 7월 21일 가족법개정을위한여성연합회 회장단 회의

▲ 1984년 8월 30일 가족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거리에 선 선생님

▲ 1986년 10월 7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30주년 기념식

▲ 1989년 3월 미국 뉴저지 주립대에서 브레넌 인권상 수상

▲ 1990년 12월 10일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 1992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판문점 분계선을 넘어 평양 방문

사랑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다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 이태영

이 희 호
김대중평화재단 이사장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대낮과 같이 환한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도 있다. 남편 김대중 대통령과 내가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손을 잡아 주고 등불을 비춰 준 분이 계셨다. 바로 정일형 박사와 이태영 박사 내외분이다.

선생님은 일생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그리고 소외된 여성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이었다. 무엇보다도 이태영 선생님이 세운 '가정법률상담소'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여성들에게 큰 등불이 되었고, 양성평등 실현의 요람이 되었다.

우리 여성들은 이태영 선생님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이 빚을 갚는 길은 지금도 차별과 소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손을 잡아 주는 일이다.

윤 후 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사 • 전 이화학당 이사장

이 나라 여성해방사의 메가(Mega),
행동하는 지식인,
인권의 선구자, 민족의 큰 별,
번민하는 이웃에 바친 한평생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여의도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국 여성운동사에 있어 하나의 굵은 획을 그었으며 번민하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 주고, 인권운동, 법의 서민화, 양성평등 사회, 실질적 민주주의의 길을 선도하여 차원을 달리하는 사회·문화 변화의 바탕을 이룩했습니다.

선생님은 최초의 서울대 법대 여학생, 최초의 여변호사, 최초의 여성 법학박사, 최초의 여성 법대학장 등 '한국 최초'라는 그 많은 화려한 훈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명예, 지위, 권력을 헌신짝같이 내던지시고, 민주투사로서의 역경을 이겨내시고, 가족법 개정운동 반대자들로부터의 폭언·수모를 견디어 내시고, 가장 소외되고, 힘없고, 짓눌린 서민 대중의 벗이 되어 사랑의 손길을 널리 펴 주시는 일에 80여 년의 고귀한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한 승 헌
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 • 전 감사원장

사서 고생하신 위대한 여성 변호사
이태영 박사 2주기 추모식 추모 강연(2000. 12. 15)

이태영 박사님은 선구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여성운동가로서, 법률가로서 정말 남다른 업적을 많이 쌓으셨습니다. 여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태영 박사님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법률구조의 전당이 되었습니다. 이태영 박사님은 법률구조를 통하여 개개인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 지난 2014년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 탄신 백 주년을 맞이하게 된 상담소는 선생님의 탄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사회 각계 많은 분과 더불어 그 마음을 한데 모아 추모문집을 발간하였다. 선생님의 25주기를 맞아 당시 추모문집의 뜻깊은 부분을 함께 나누며 선생님의 삶과 남기신 큰 뜻을 되새겨 본다. 추모문집 이후 고인이 되신 필자도 있으나 당시 문집에 기록된 그대로 게재한다.

의 차원을 넘어서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 눈뜨고, 자기의 존엄을 찾고, 남성과 함께 양성이 평등하게 나서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큰 깨달음을 주신 선구자이셨습니다.

이태영 박사님께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가족법 개정에 크게 이바지하신 것, 그리고 가정법원 설치에 큰 공을 남기신 것은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태영 박사님께서 여성만 각성시킨 게 아니고 남성까지 각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지위 문제는 여성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양성의 한 축인 남성의 회개와 깨달음과 실천이 따를 때 가능한 것인데, 이 변호사님은 그동안 오랜 역사 속에서 남성 중심의 사고가 빚어낸 잘못에 대하여 남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함 세 웅

신부 • 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선생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선생님의 믿음, 선생님의 삶, 선생님의 가치, 선생님의 전 인격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성의 존엄과 가치가 늘 확인되고 기억되는 한, 선생님의 행업도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 여성사에서 여성의 권리와 평등의 씨앗을 뿌린 선생님의 업적은 바로 인간의 굳은 마음을 십자가의 쟁기로 갈아 하느님의 말씀을 심으신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소의 표상이 주는 그리스도론적 교훈을 선생님께 적용하며, 저는 이제 선생님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신 헌신적 존재라고 칭송합니다.

박 병 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태영 선생은 그 활동 분야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나는 '박사'의 칭호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학박사이며 최초의 여성 법학교수이며 법대학장인 학자이기 때문이다.

이태영 박사의 「한국이혼연구」는 1968년에 심사에 통과되어 이태영 박사는 1969년 3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저서로 출판되었으니 진정 가치 있는 연구이며 후학의 모범이 되었다.

이 효 재

전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나는 이태영 선생님이 전문 지식인으로서 여성들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지도력으로 사회 민주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노력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1970년대 이태영 선생님이 이대 법대 학장으로 재임할 당시 하루는 본인의 연구실로 찾아오셨다. 나로서는 이태영 선생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사적으로 만난 일이 처음이어서 반가이 맞이하였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혼인식을 거행하지 않은 여성들의 간곡한 소원을 거론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들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다. 이런 선생님의 모습은 지금도 내게 깊은 영감이 되고 있다.

이태영 선생님의 깊은 열정과 인간사랑은 민족통일을 향한 열망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한 봉 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가족법학회 고문

20세기 현대사에서 우리 국민이 이태영 선생님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갖게 된 것은 큰 자랑이며 보람이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지적해 왔던 바와 같이 선생님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인권신장, 법학교육, 서민의 법률구조, 가족법 개정 등 여러 분야에서 크나큰 업적을 남기셨으며 이 분야에 평생을 바치신 우리 사회의 큰 스승이셨다.

이 현 재

전 국무총리 • 전 호암재단 이사장

선생님의 업적을 끝없이 들어 볼 수야 있겠으나, 모두 각설하고 여권신장과 가족구조 개혁으로 집약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추상적인 문제제기보다는 실천적으로 도전적이고 가위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취를 이룩하였습

니다. 그것은 신민법의 사례처럼 새로운 입법, 행정절차나 관행의 변경이나 혁파, 법률구조 활동의 확대 등으로 그동안 상상하기 어려운 탁월한 성과를 이룩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선생님은 여권신장을 위한 희생적 공헌이 인생의 전부였다 할 것이고, 평생 지향해 오신 여성사회 개혁을 위해서 가위 불출세(不出世)의 인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강 국

변호사 • 전 헌법재판소 소장

선생께서 평생을 두고 소망하시던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제의 폐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구체적으로는 위헌결정의 한 유형인 헌법불합치결정이다)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 헌법재판소장으로 있으면서 행하였던 여러 강연에서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중의 하나로 필자는 늘 위 두 결정의 내용과 의미를 강조하곤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이 대부분 그러하지만, 특히 이 두 결정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가장 근원적인 틀인 신분과 가족관계를 통째로 바꾸어 놓은 것이어서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은 지금도 큰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계층간 • 세대간 • 지역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고 불신과 증오가 우리 사회의 소통과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즈음, 선생과 같이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대의를 위해 일생을 바치고 희생하신 거인이 더욱 그리워지는 것은 우리 몇 사람만의 안타까움은 아닐 것이다.

김 용 담

변호사 • 전 법원행정처장

특히 법률가들이나 위정자들이 법치주의 또는 법률의 지배를 말할 때에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 그 법률이 과연 정당한 것이고 관철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법률을 법치의 이름으로 또는 법률지배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하면서 법률의 개정을 통하지 않고는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고, 그래서 가족법 개정운동을 하는 분들의 "법이 한(恨)을 맺히게 해서야 되겠는가?"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은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족법 개정의 일을 예지와 선견지명을 가지고 착안하고 끈기 있게 추진한 분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고(故) 이태영 박사와 가정법률상담소의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왔습니다.

이 해 동

목사 • 청암재단 이사장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셨다. 훌륭하신 분이었고, 특출한 분이셨다. 세상에 와서 이태영 선생님만큼 우리 사회와 역사에 꼭 필요하고 좋은 일을 하시고,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 질에 있어서나 양에 있어서나 선생님이 하신 일들은 어느 누구도 폄훼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나는 확언한다.

선생님은 한국 역사의 밭에 하느님께서 뿌리고 심은 하늘씨앗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늘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는데, 이태영 선생님이야말로 한국이라는 토양에 뿌려져서 한국 역사의 변화와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신 겨자씨였다.

이 종 대

동아투위 위원 • 전 대우차 회장

이태영 어머니!

변호사, 박사, 인권운동가, 여성운동가 등 수많은 얼굴을 가지신 선생님이시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은 단연코 '어머니'랍니다.

저의 뇌리에 각인된 어머니의 여러 모습 중에 으뜸가는 것은 어머니의 그 밝은 눈입니다. 낙천적 성품의 소유자로 낙인찍힐 만큼 늘 유쾌하시고 활달하신 어머니의 눈길이 양지보다 음지 쪽에 쏠려 있으리라고 상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필생의 사업인 여성 인권신장과 여성 법률구조는 남성 우위사회의 그늘을 투시하는 눈이 있었기에 가

능했던 일입니다. 여간 눈이 밝지 않아서는 어둠과 그늘 속의 현상들을 속속들이 살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둠 속을 그냥 훑어본 것이 아니라 '뼈아프게' 응시하셨습니다.

장 명 수

이화학당 이사장 • 전 한국일보 사장

20대에 이태영 선생님을 만났다는 것은 나의 생에서 큰 축복이었다.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30여 년 동안 기자와 취재원으로의 관계가 지속되었고, 내가 상담소 신문 '가정상담'을 만드는 일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나를 가깝게 생각하셨다.

선생님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힘을 키우려면 신문사를 하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미래의 여성신문사 사장으로 나를 지목하셨다. "세상에 무슨 말씀을! 편집국장도 못하는데 무슨 사장을 하겠어요?"라고 나는 펄쩍 뛰었다. 선생님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아라' 하시는 듯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펄쩍 뛰는 나를 바라보셨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1년 후에 나는 한국일보 주필이 되었다. 종합일간지 최초의 여성 주필이 나왔다고 떠들썩했다. 그리고 다시 1년 반이 지난 후 나는 한국일보 사장이 되었다. 종합일간지의 첫 여성 사장이었고, 당시 여·야 3당 모두가 환영 입장을 밝혔을 만큼 일대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나는 요란한 축하 속에 선생님이 안 계셔서 너무나 슬펐다. 선생님의 선견지명, 언론계 내부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여성 국장, 여성 사장을 이미 1970~80년대 부터 꿈꾸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가.

안 경 환

서울대 명예교수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대저 시대가 사람을 만들지만 때로는 사람이 시대를 열기도 한다. 새 시대를 연 사람, 그런 사람을 일러 선구자라고 부른다. 스스로 이루지는 못해도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 사람도 선구자의 반열에 든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 사회가 배출한 수많은 선구자들 중에 이태영 선생만큼 집중 조명을 받은 분도 드물다. 당신의 생전에는 물론 타계한 후에도 끊임없는 기림을 받는다. 물론 챙겨 주는 후세의 체계적인 노력 덕분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분의 궤적과 업적이 뚜렷이 빛나기 때문일 것이다. 선생은 적어도 국민 절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 인 령

전 이화여대 총장

이태영 선생님은 하도 크신 분이셔서 나는 감히 선생님의 삶과 업적에 관하여 필설로 표현할 수 없다.

선생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면 제자나 후배들에게 어떤 양심적 결단을 촉구하실까. 나도 어느덧 선생님께서 역사 앞에서 원로로서의 소명을 다하시던 때의 그 나이가 되어 버렸다는 자각에 문득 숙연해진다. 지금 내가 나의 분수에 맞는 작은 실천이라도 게을리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새삼 성찰하게 하시는 우리 스승님이 오늘 더욱 그립고 그립다.

김 춘 봉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사·백인변호사단 대표변호사

상담소의 58년 역사는 이태영 변호사의 눈물의 역사였다. 지금 생각하니 강한 여성으로 보인 이태영은 눈물이 많은 약한 여성이기도 했다. 나는 이태영 변호사가 눈물 때문에 계속 진행하지 못하는 회의를 옆에서 도와주곤 하였다. 이러한 상담소를 이태영 변호사가 키운 제자들이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 발전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태영 변호사는 남편인 정일형 박사를 따라 지금은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고이 잠들어 있으나 상담소는 그의 뜻에 따라 발전하고 영원히 이 나라 여성들의 눈물을 닦아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돌아보면 나는 60여 년간 상담소를 위해 봉사한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며, 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특별기획

음주문제예방**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12, 끝)

● 음주문제 상담

• 대상자

음주문제가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대상을 선별하여 진행합니다.

• 서비스

내담자의 알코올 의존정도, 알코올 문제 대처방안, 이용 가능한 알코올 문제 서비스 기관 연계 등 다각도로 음주문제를 다룹니다.

• 시간

연 4회, 각 4회기로 실시합니다.

• 진행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알코올 상담 전문 자격을 갖춘 본소 상담위원이 진행합니다.

• 비용

무료로 진행됩니다.

● 음주문제 상담 목표

(1) 음주문제의 잠재성에 대한 인식 및 감정의 표현을 촉진시킨다.
(2) 음주의 개인적 결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3) 음주에 선행하는 가족적·사회적·직업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4) 음주의 선행 상황에서의 감정과 반응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5) 음주 및 가정폭력의 선행 상황에 대한 예측능력을 증진시킨다.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법의 제정 이후에는 가정폭력상담소로써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정폭력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시리즈의 하나로 2006년부터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음주관련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상담소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음주문제상담을 일반인들에게도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6)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법으로서 음주행동의 대안들을 증가시킨다.

● 음주문제 상담 내용

상담초기 | 음주문제 상담 1회기

(1) 음주문제 상담에 대한 기대 및 동기 탐색

- 음주문제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와 변화동기를 탐색하고 음주문제 상담의 선택은 내담자 본인에 의한 것임을 재확인시킴

(2) 음주문제 선별

- 음주행동 질문
  - 지난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며칠 간 술을 마셨습니까?
  - 술을 마시는 날에는 얼마나(몇 잔) 마십니까?
  -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마셨을 때는 얼마나(몇 잔) 마셨습니까?

- 음주문제 선별검사 실행
  -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 한국형 알코올리즘 선별검사(NAST 1)
- 내담자에게 선별검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3) 음주습관 변화동기와 스트레스 평가

(4) 초기 상담목표 설정 및 계약

- 내담자 음주습관 변화준비성 정도[1]와 욕구에 따른 일차 상담목표 설정

• 전숙고단계[2]
선별검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조언, 알코올 교육, 가족개입 등
• 숙고/준비단계[3]
음주의 득과 실 평가, 변화에 대한 의사결정, 활동계획 등
• 활동단계[4]
변화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변화전략의 선택과 실행 등

- 상담 진행에 따라 변화 동기가 향상되면 단계에 부합되는 상담목표를 재설정
- 이미 절주나 단주를 하고 있거나 원하는 내담자의 경우는 목표를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고, 음주습관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 대안활동을 최소한 1개 이상 선택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계획을 구체화

(5) 상담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 상담의 궁극적 초점은 단주나 절주와 같은 음주행동 자체에만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전인적 삶에 두어짐을 설명
- 배우자 상담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담초기에 1회 이상 배우자 상담이나 부부상담을 가질 것을 권유

---

1) 변화단계는 전숙고단계, 숙고단계, 준비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변화는 단계나 주기를 따라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2) 전숙고단계는 음주습관에 대한 변화의사가 없으며 문제행동의 득이 실보다 많다고 여긴다. 따라서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음주문제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어야 한다.

3) 숙고단계는 음주습관에 대한 변화를 생각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변화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음주행동을 변화시킬 준비행동을 결심해야 다음 변화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준비단계는 자신의 음주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를 위한 변화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문제행동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활동단계는 음주습관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수정하고 문제행동의 재발예방을 위한 기술을 학습하는 단계이며 행동변화 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다..

(6) 알코올교육

- 음주와 가정폭력과의 관계
- '알코올이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정폭력의 주제와 연결시켜 정보 제공

상담초기 | 음주문제 상담 2회기

(1) 점검

- 지난 회기 상담 이후 내담자의 음주행동 및 관련 상황에 대한 점검

(2) 인생 곡선 그리기

- 음주문제가 내담자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탐색
- 인생의 주요시기에 행복 100점 ↔ 불행 -100점의 점수를 주는 인생 그래프를 그리고 설명하도록 함
- 인생 곡선 위에 음주행동의 변화를 또 하나의 그래프로 그리게 하여 상호관련성 탐색의 기회 제공
- 음주문제의 잠재성에 대한 인식 및 감정의 표현을 촉진시키고, 음주의 개인적 결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

(3) 알코올 남용과 가정폭력행동의 관계에 대한 사정

- 알코올 남용과 관련해서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의 확인
- 전체 폭력행동 가운데 내담자의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정도
- 폭력행동 전에 사용되는 알코올의 종류 및 양
- 알코올 사용에 선행하거나 수반되는 감정
- 폭력 사건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알코올이 사용되는지의 여부

(4) 음주문제와 가정폭력에 대한 내담자와 피해자의 지각과 신념체계를 탐색 비교

(5) 상담목표 재점검 및 최우선 상담욕구 탐색

- 변화준비성이 전숙고 및 숙고단계인 내담자는 2회기에 음주행동 및 문제를 탐색할 기회를 가진 후 개별화되고 구체적인 상담목표를 설정
- 음주문제 상담에서 내담자가 다루고 싶은 최우선 욕구를 구체적으로 확인
- 음주문제가 있으나 그보다는 가족관계와 같은 다른 문제를 최우선 상담욕구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내담자의 아젠다를 따르되 '알코올 기본교육'의 내용에 상담 시간을 부분 할애 할 것을 약속
- 음주문제는 내담자의 전인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상담회기가 진행되면서 어떤 시점에서든 음주문제와 연결됨

(6) 과제 부여

- '음주의 좋은 점과 덜 좋은 점' 기록해 오기

상담중기 | 음주문제 상담 3회기

(1) 점검

- 지난 회기 상담 이후 내담자의 음주행동 및 관련 상황에 대한 점검

(2) 과제 검토 : 음주의 좋은 점과 덜 좋은 점

- 기록해 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 들으며 검토하고,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 있는가에 대해 자기평가 할 기회 제공
- 변화가 필요한 이유와 변화하지 않을 때의 위험을 이끌어내어 득과 실의 균형을 잃게 함

(3) 「알코올 의존과 회복의 도표」 검토 및 알코올 교육

- 「알코올 의존과 회복의 도표」를 사용하여 내담자가 자

신의 음주 양상과 도표의 알코올의존 진행 단계를 비교하며 자기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알코올 의존의 특성과 회복단계에 대한 교육을 실행
- '알코올 의존'이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내담자에게는 도표가 알코올 의존 뿐 아니라 경미한 음주문제 수준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설명
- 도표의 내용은 알코올 의존 회복자들이 자신의 공통된 경험들을 도표로 꾸민 것임을 설명하고, 내담자에 따라 음주문제 진행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음을 설명
- 상담자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내담자의 삶에 초대받은 자세로 자기평가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며, 특히 상이하다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며 명료화하면 이와 함께 행위자의 자기노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기평가 과정에서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왜곡되게 인지하고 있는 정보를 바로잡음으로써 알코올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짐
- 도표 상의 특정 내용에 대한 내담자의 불신이나 의구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내담자의 반응을 저항이나 부정의 행위로 해석하기보다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서 다루어 나감
- 활동단계의 내담자에게 자기평가 과정은 음주문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재확인하고 자신의 회복과정에 대한 자긍심을 향상시킴으로서 긍정적 확인의 기능을 함

(4) 음주 및 가정폭력의 선행상황 탐색

- 선행상황에서의 감정과 반응에 대한 인식 증진
- 선행상황에 대한 예측능력 증진

(5) 변화행동에 대한 의사결정과 계획

- 가치의 명료화
  • 당신은 건강에 가치를 두는가?
  • 가족에 대한 책임은 중요한 가치인가? 등
- 절주 및 단주를 개인의 정체감의 부분으로서 초점을 맞춤
- 절주나 단주의 의사결정
- 절주의 경우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

(6) 변화전략의 선택

- 음주습관 등의 변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활동을 선택하도록 원조
- 음주 및 가정폭력의 선행상황에서의 대처방안도 구축
- 내담자가 고려하고 있는 변화전략을 중심으로 선택
- 실행에 대한 확고한 약속
-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의 약속을 알리기
- 현재의 행동변화를 위한 자기효능감을 강화

(7) 정신건강 평가

- 자기평가 과정에서 이중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8) 과제 부여

- '단주나 절주의 득과 실', '친지들의 변화전략' 알아보기 등

(9) 전숙고단계 내담자의 종료

- 자기평가를 끝내는 시점에서도 변화동기가 전숙고단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음주시의 건강수칙이나 음주운전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
- 상담을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나 음주문제 인식증진과 같은 변화된 점을 나누고, 지역사회 알코올상담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종료

상담중 | 음주문제 상담 4회기 ~ 5회기

(1) 점검

- 지난 회기 상담 이후 내담자의 음주행동 및 관련 상황에 대한 점검

(2) 음주문제 재발의 촉진요인 검토

- 음주문제 및 가정폭력 선행상황에 대한 인식 증진

(3) 변화전략의 선택과 실행

- 변화단계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 검토
- 새롭게 얻은 정보를 참고하여 변화전략 재구성

(4) 대안행동의 습득

- 변화행동의 지속 및 결정에 대한 평안감
- 자기효능감의 통합
- 내담자의 욕구에 따라 개별화된 행동 연습

(4-1) 긍정적 자기진술

(4-2) 이완훈련

(4-3) 스트레스 관리
- 이완훈련
- 대안활동 소개 및 선택

(4-4) 의사소통훈련
- 공감 및 '나 전달법' 소개
- 주장기술(음주거절기술)

(4-5) 원가족 관계 탐색과 인지 재구조화 연습
- 원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욕구좌절이 음주문제 촉발의 주요 요소인 내담자의 경우에는 원가족 관계를 다루고, 인지평가를 새롭게 해보는 기회 제공

(5) 과제 부여

- 개별적인 상담목표에 부합되는 과제로서 원가족 관계 탐색, 자신의 장점 10가지 찾기, 배우자의 장점 10가지 찾기, 영화감상, 독서 등 부여

상담종료 | 음주문제 상담 6회기

(1) 점검

- 지난 회기 상담 이후 내담자의 음주행동 및 관련 상황에 대한 점검

(2) 사후조사

-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 변화준비성(RTC)
- 스트레스 지각 척도(GARSS)

(3) 상담을 통해서 변화된 점

- 알코올의 사용

(4) 변화유지를 위한 점검

- 음주로 이끄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role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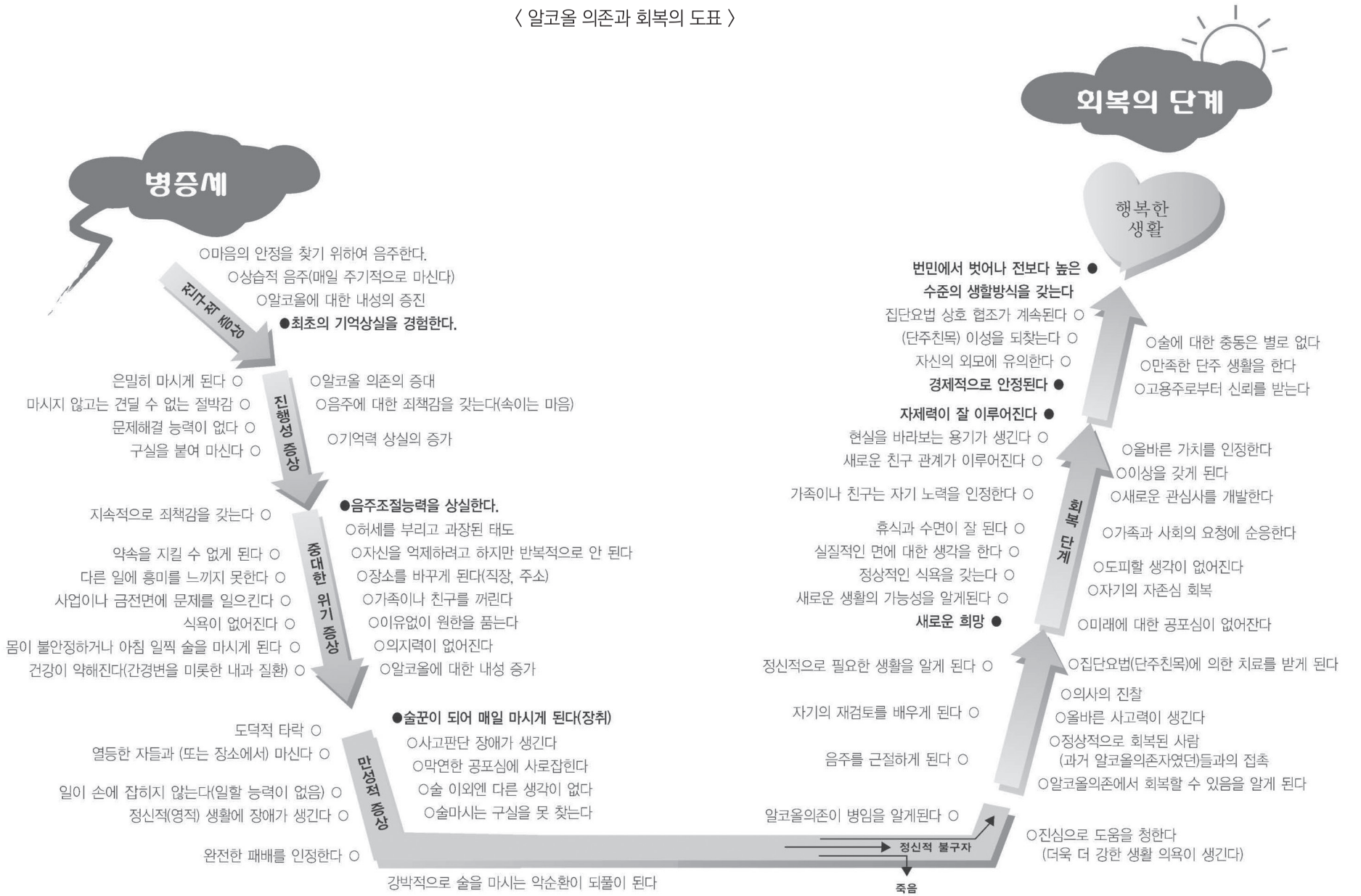
(5) 음주문제 관련 지역사회 자원 소개

- 지역사회 알코올상담센터 및 단주 자조모임(A.A.)소개

(6) 마무리

- 상담기간 동안의 음주문제 및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내담자의 노력을 재확인하고 격려하며, 상담소의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내방할 수 있음을 알림

〈 알코올 의존과 회복의 도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㊻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활발한 법률임상교육

1964년 3월 이화여대 법정대 법률학과와 여성법률상담소 지매결연, 법률임상실습 시작
2007년 10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학생 실무교육에 관한 협약
2008년 10월 서강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2009년 5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실무수습 협약
2010년 5월 동국대학교와 산학협동교육 협약
2011년 11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 협약
2012년 5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 협약
2016년 12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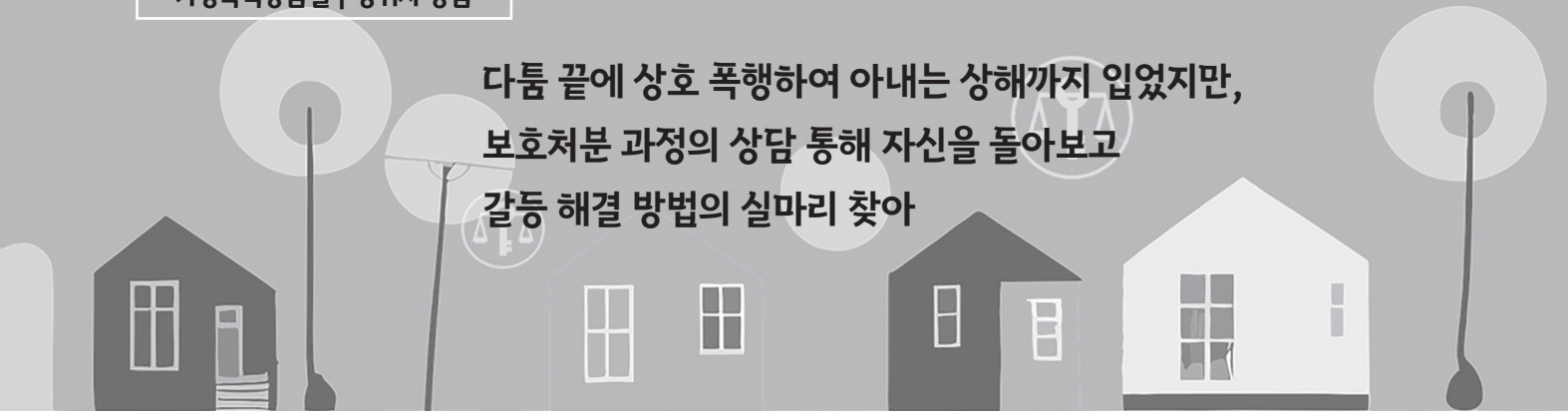
상담소의 법률구조사업이 더욱 전문화, 본격화되고 또 다양화하면서 우리 사회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인 상담소에 대한 견학과 실습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상담소는 이러한 연장선에서 상담소의 역사와 축적된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과 2007년 10월 9일 이화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실무교육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로스쿨 산학프로그램 운영의 협약에 따라 상담소에서는 이화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수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소는 이미 1964년부터 이화여대 법과대학에 법률구조 과목(임상실습 과목)을 개설하고 강의를 담당하여 왔다. 이 강의는 법학을 전공하는 3, 4학년 학생들이 매년 한 학기 동안 상담소에 와서 가정 문제의 현장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등 법률상담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점차 사회복지학과, 사법연수원 등으로 확대되어 법률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였다.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현재는 상담소가 축적해 온 경험과 역사 및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한 로스쿨 산학프로그램과 대학생 임상실습 및 자원봉사 교육으로 이어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담소의 법률임상실습은 새로운 법학교육 시스템 아래에서 법학도들에게 공익법무와 가족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법조인으로서의 시대적 소명과 법조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어 2008년에는 서강대학교, 2009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년 동국대학교, 2011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2016년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학기마다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활발한 실습이 이어지고 있으며, 참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뜻깊은 후기가 계속되고 있다.

편집부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다툼 끝에 상호 폭행하여 아내는 상해까지 입었지만, 보호처분 과정의 상담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갈등 해결 방법의 실마리 찾아

2021버3상해, 폭행 / 2021버3**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3회, 집단상담 5회(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2회, 자조모임 4회(비대면 실시)
부부상담 6회 등 26회

상담기간

2021. 4. 13. ~ 2021. 11. 22.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9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남 1녀(7세, 4세)가 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남편이 여행지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한 아내와 이를 부인하는 남편 간에 다툼이 잦던 터에 2020년 12월 사건당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부부가 서로 폭행하였고, 특히 남편은 아내의 뺨을 때려 고막을 손상시키는 등 상해까지 가하였다. 부부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아내는 갈등원인으로 위의 사실 외에 경제문제도 꼽았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만 남편이 응하지 않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며, 자신도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크고 자신이 준비되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현재 심정을 피력하였다. 한편, 남편은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였는데 아내가 늘 어려운 경제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모욕감을 느꼈고, 자신은 외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여행지에서는 주식투자 정보를 얻기 위하여 친구가 원하는 노래방에 간 것 뿐이라고 하였다.

부부 모두 결혼을 유지할 의사가 있어 남편은 가족을 우선으로 행동하기, 아내는 부정적인 감정 표출 자제하기를 각 실천과제로 정하였다. 아내는 가끔 남편에 대한 분노 감정이 들어 힘들어하면서도 자조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하였다.

중간점검 결과, 남편은 아내와 같이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부부 사이가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보고하였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던 아내가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변화를 보고하면서 사건당시 부부관계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4점, 현재는 8점으로 평가하였다. 아내는 남편이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고, 술자리에 가지 않았으며,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변화를 보고하였고, 사건당시 부부관계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3점, 현재는 8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아내는 부동산중개사 자격시험 1차에 합격하는 성과가 있었다.

아내는 두 아이를 출산하고 경력이 단절되면서 우울증이 왔고,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부유한 형편에서 자랐으나 부모 사이가 좋지 않았던 탓에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잘하지 못하고 말투가 단

호하며 잔소리나 푸념이 많았다고 자신을 돌아보았다. 지난 2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구나, 아이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따뜻한 말투로 따뜻한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남편이 이에 따라주는 것을 평가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우울증을 알지 못하여 아내의 감정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충돌이 잦았는데 이제 아내에게 감정 변화가 오면 피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면서 충돌을 피하게 되었다. 자신도 아내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표현이 서툴렀던 점을 인정하였고, 1년 후 있을 해외지점장 파견에 대비하여 외국어 공부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종결상담에서 부부 모두 현재의 부부관계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하였다. 좋아진 점은 서로 힘든 점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 점이라고 꼽았고, 향후 보완할 점으로 아내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 표현하기를, 남편은 자신의 표현 방식 개선을 꼽았다. 부부를 격려하고 향후 관계가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1*** 특수상해/ 2021버1****특수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음주문제 상담 6회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 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집단상담 4회(비대면 실시),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1회(비대면 실시),
자조모임 5회(비대면 실시)
등 26회

상담기간

2021. 6. 14. ~ 2021. 12. 28.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31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2남(32세, 28세) 1녀(31세)가 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3년 전 퇴직하고 개인회사에 근무하며, 아내는 시를 쓰고 시낭송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2020년 12월 사건당일 아내는 남편이 상의 없이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에 화가 나 다투던 중 남편이 휴대전화를 들고 대화내용을 녹음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톱으로 남편의 얼굴을 할퀴고 아령으로 온몸을 때리는 특수폭행을 하였고, 남편은 아내가 들고 있던 아령을 빼앗아 아내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7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상해를 가하는 특수상해를 하여 부부 쌍방이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남편에 의하면 20여 년 전 고등학교 후배 여성과 저녁식사를 한 후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역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아내의 의심이 점점 심해져 한 집에서 살 수 없을 정도고 자녀들도 부부의 일은 부모 의사대로 하라고 하여 집을 팔아 아이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아내와 별거할 생각으로 집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아내가 반대하면서 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남편은 더 큰 폭력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2021년 1월 집을 나와 혼자 살면서 주민등록열람제한을 신청하였다. 아내와 재결합할 의사는 없었고 법적 책임은 다할 것이므로 상담은 열심히 받겠다고 하였다. 공과금과 보험료는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아내는 살던 아파트에서 계속 살면서 소유 상가를 운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아내는 결혼 초부터 남편이 이혼을 언급했고 과거와 현재 모두 남편의 부정행위는 사실이며 음주문제도 심각하지만,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아픈 친정어머니를 모시게 되어 남편의 부재를 마음에 두지 않고 지낸다고 하였다.

상담이 중기에 접어든 8월에 아내의 어머니가 별세하고 남편이 장례에 함께 하면서 부부관계가 개선되는 전기가

되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연민의 마음이 생겼고, 이후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기도 하였으며, 자동이체되는 생활비 외에 추가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자녀들과도 다시 만나면서 아내와도 만날 수밖에 없었고, 더 늙으면 아내밖에 남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상담종결 시 남편은 지금 아내와 좋은 관계인데 어설프게 재결합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어 재결합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하면서 폭력은 결코 하지 않기로 다짐하였다.

상담종결 시 아내는 남편과 소통이 잘 되고, 지금 당장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지만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그동안 왜 그렇게 다투고 살았는지'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였다. 사건당시 부부관계 만족도는 0점, 상담종결시는 10점 만점에 7점으로 평가하고, 만족도 상승 요인으로 남편의 태도 변화를 꼽았는데 공격적이었던 남편이 공격적이지 않고 수용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별거로 남편의 늦은 귀가나 음주습관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비난할 여지가 없었고, 요구하는 것도 없었던 점도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아내는 그동안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지금 지내는 관계가 좋으며, 앞으로의 관계도 희망적으로 기대하였다.

2020버3*** 재물손괴/ 2020버3**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음주문제 상담 6회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집단상담 5회(비대면 실시),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2회,
자조모임 9회(비대면 실시)
부부상담 5회 등 29회

상담기간

2021. 6. 15 ~ 2021. 12. 16.

상담경과

부부는 6년 전부터 사실혼관계이며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남편은 초혼, 아내는 재혼이며, 부부가 함께 가게를 한다.

2020년 9월 사건당일 남편은 아내와 음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의자를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고, 아내도 쟁반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부부 모두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부부는 혼인유지 의사가 있었지만 남편의 음주문제 때문에 아내는 혼인신고에 대하여는 유보적이었다. 남편은 자신의 음주문제만 개선되면 다른 갈등요인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아내에게 바라는 바는 없었다. 상담기간 중 실천과제로 남편은 음주횟수를 1주일에 3회, 1회 음주량은 소주 반병으로 줄임과 동시에 음주를 하더라도 잔소리 등 주사를 하지 않고 조용히 잠자기, 아내는 남편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트집 잡지 않기로 각 실천과제를 정하였다. 부부는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하였다.

중간 점검 결과, 남편은 절주노력을 하였고, 음주후 조용히 잠자는 등 음주습관이 개선되었다. 폭력은 물론 말다툼도 하지 않았으며, 남편이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실천함으로써(속마음 표현) 부부간 신뢰가 돈독해졌다. 아내도 그동안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등 언어폭력을 한 점을 인식하고 비폭력대화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상담 종결 시 아내는 상담 초기에는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상담의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였고, 상담을 통하여 더욱 커질 수 있었던 갈등문제를 예방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부부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4~5점, 상담 종결 시는 9점으로 평가하였다. 부부의 긍정적인 변화를 격려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어떻게 할까요

이 혼 ㉓

●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되는가

Q 문 93 | 결혼 당시 남편은 무일푼이었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3, 4년간 남편이 하는 식당일을 같이 하며 기반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저는 가사에 전념하며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최근 남편의 여자관계 등으로 협의이혼 하기로 했으나 남편은 10억여 원의 재산 가운데 남에게 진 빚이 4억 원 정도 되니 빚을 제하고 남은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업상 빚이라고는 하나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부채 때문에 이혼할 때 받아야 할 재산이 너무 줄어들어 억울합니다. 남편의 부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A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 곧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따라서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역시 부부 공동의 재산을 보존·유지하기 위해 수반된 것이라면 이 채무를 제하고 남은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 빚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Q 문 94 | 남편과 혼인생활을 10년 하면서 제 명의로는 생활비에 사용한 카드빚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잦은 이직과 실업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그때마다 부족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집 담보 대출 이자 등을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해왔기 때문입니다. 남편 명의로는 집 한 채와 이 집을 구입할 때 진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려고 하니 남편은 제 명의로 된 채무에 대해서는 갚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제 명의로 된 빚은 저 혼자 갚으라고 합니다. 결혼생활로 인해 진 채무를 분할할 수 있나요?

A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적극재산을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

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의 공동생활로 인해 발행한 채무에 대한 분할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누락된 재산분할, 이혼 후 재청구 가능하다

Q 문 95 |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당시 누락된 재산들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재청구가 가능한지요?

A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사실혼이 이어지다가 파탄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Q 문 96 | 저희 부부는 10여 년간 두 번의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혼 후에도 계속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남편이 최근 다른 여자를 만나 가출했습니다. 그동안 형성된 재산은 모두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은 이미 3년 전에 이혼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맞벌이하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인데 제게는 권리가 없는지요?

A 부부 사이에 10여 년간 법률혼과 사실혼이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 기간도 거의 없었다면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거나 포기하지 않은 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따라서 귀하는 혼인생활 전 기간에 걸쳐 이룩한 재산에 대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재산분할재판 중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Q 문 97 | 저는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고 작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전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전남편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전남편 모두 슬하에 자녀가 없으며, 전남편의 부모는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전남편의 부모는 전남편의 재산은 모두 자신들이 상속받는 것이며 저의 전남편에 대한 청구는 모두 무효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요?

A 재산분할심판 계속 중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절차가 종료되는지 여부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그 절차가 종료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어 버린 경우 재산분할권리자가 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거나 재판을 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했던 재산분할청구는 시부모가 수계하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어떻게 할까요」중에서

Q 5년 전 아들이 사망하자 며느리는 제게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 손자를 맡기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손자가 부족함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고 있고, 손자도 저와 평생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 장의 독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알아보니 며느리가 손자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수백만 원의 소액 결제를 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휴대전화를 정지하려고 했더니 저는 손자의 친권자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정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린 손자가 이미 수백만 원의 빚을 안고 있다는 것도 속상한데 며느리가 친권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더 많은 빚을 만들까 염려됩니다. 며느리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제1항).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924조 제1항),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24조 제2항). 또한 친권의 일시정지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24조 제3항). 여기서 친권의 남용이란 신체적·정신적 학대,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거부, 자녀의 취학 거부, 자녀를 범죄나 성매매 등으로 유도하는 것, 자녀와 친밀한 유대관계에 있는 조부모 등 제3자와의 만남을 금지하는 것, 친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 친권자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리를 해하는 것을 이릅니다. 또한, 자녀에게 적절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지 않는 등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여 자녀를 방임하는 것도 친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친권자의 충분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그 판정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며느리를 상대로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심판청구를 한다면 위의 모든 사항들이 고려될 것입니다. 며느리가 법원에서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를 받을 경우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동법 제927조의2 제1항 제1호, 제909조의2) 귀하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로 인해 발생한 손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손자는 부당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미성년인 손자를 대리하여 위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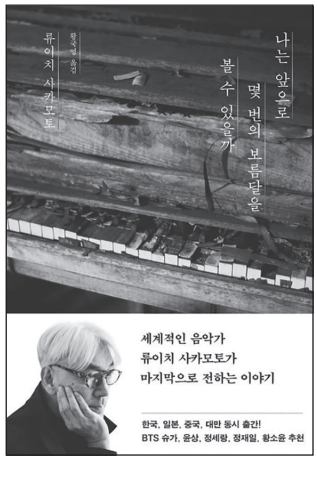
권지연 상담위원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류이치 사카모토

황국영 옮김

위즈덤 하우스, 2023(초판 5쇄)



사실은 일본의 영화 음악가 중에는 히사이시 조를 좋아한다. 익숙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인생의 회전목마', '기쿠지로의 여름' 그리고 우리 영화 '동막골'의 테마 음악들처럼 들으면 그냥 알게 되는 마치 작가의 지문이 묻은 것과 같은 히사이시 조의 음악들. 그래도 지금의 이 계절이면 음악 방송에서 빼놓지 못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의 사카모토 류이치를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올해 3월 말 세상을 떠났고, 그가 음악 작업을 한 영화 〈괴물〉이 엊그제 개봉했기 때문이다.

가을 어느 날, 서점을 지나다 진열된 이 책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를 보고 먼저 제목에 끌렸고, 지은이를 확인하고 책을 샀다. 같은 시대에 살던 이런 이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한 시대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어둑해지는 거리를 밝히던 가로등 하나가 툭 꺼진 듯한. 이처럼 사카모토 류이치 – 책에는 류이치 사카모토라 했으나 나는 사카모토 류이치가 더 익숙하다. – 는 지금의 시대를 대표해 온 예술가이며 활동가였다. 그가 살아생전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이고, 특별부록으로 수록된 그와 생전 인터뷰했던 스즈키 마사후미가 쓴 '저자를 대신한 에필로그'와 사카모토의 일기 일부도 인상 깊었다. 거기에 33곡의 장례식 플레이리스트도 좋았다.

그는 2014년 처음으로 암 진단을 받고 완쾌 판정을 받은 이후 다시 2020년, 암이 재발하고 전이했으며 치료를 받더라도 5년 이상 생존율은 50퍼센트라는 진단을 받는다. 그리고 여러 차례 암 수술을 받고 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암과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고 담담히 당시의 상황을 전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책에서 그는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부모님 이야기부터 그간의 음악적 여정을 따라 세계관과 철학을 보여준다.

사카모토 류이치는 음악 활동 이외에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말년에는 환경 보호와 사회운동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평소 조용한 사생활을 추구했지만, 인류 보편적 생존의 조건을 뒤흔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구온난화나 반핵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보였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반핵에 관해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책에는 이러한 그의 삶의 흔적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가 글의 마지막에 남긴 "Ars longa, vita brevis.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문장은 결국 그의 유언이 되었다.

첫 장에 책 제목에 관해 나오는데, 그가 음악 작업을 한 영화 〈마지막 사랑〉의 원작자 폴 볼스의 말이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고작 몇 차례 일어날까 말까다. 자신의 삶을 좌우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어린 시절의 기억조차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른다. 많아야 네다섯 번 정도겠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보름달을 바라볼 수 있을까? 기껏해야 스무 번 정도 아닐까. 그러나 사람들은 기회가 무한하다고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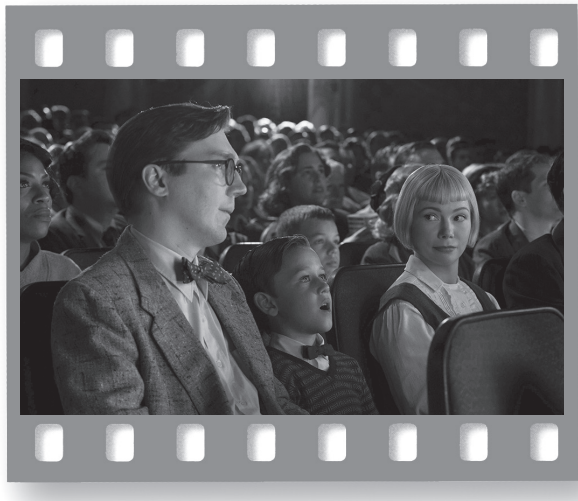
이숙현 편집부장

영화 이야기

파벨만스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출연 폴 다노, 미셸 윌리엄스, 세스 로건, 가브리엘 라벨



1952년 1월 10일 뉴저지, 어린 샘 파멜만은 아버지 버트(폴 다노)와 어머니 미치(미셸 윌리엄스)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극장에 가서 〈지상 최대의 쇼〉를 관람한 뒤 영화와 사랑에 빠진다. 이후 아버지의 8mm 카메라를 들고 동생들을 분장시켜서 온갖 영화 패러디 물을 만들거나, 가족들의 모임을 담아내는 홈비디오 영상을 찍는다. 그 사이 컴퓨터 엔지니어 아버지가 제너럴 일렉트릭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가족들은 뉴저지에서 애리조나로 이사 가고, 이제 고등학생이 된 샘(가브리엘 라벨)은 우연히 자신의 홈비디오 영상에 포착된 비밀을 알아차리고 충격에 휩싸인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제 영화는 경험에 비추어 만들었지만 이 영화는 제가 가진 기억 그 자체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절대로 만들지 않을 것 같던 종류의 영화를 만들었다. 2022년 작 〈파벨만스〉는 스필버그가 영화감독이 되기로 결심한 계기를 거슬러 올라가며 유년시절부터 20대 초반의 청년에 이르기까지 가족들('파벨만스') 사이에서 겪었던 갈등과 고민을 빼곡하게 담아낸 자전적인 작품이다.

이야기는 스필버그 자신을 투영한 캐릭터인 샘이 극장에서 처음 〈지상 최대의 쇼〉를 보며 압도당하는 데서 출발한다. 어두운 곳에 갇혀 큰 인간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떼를 쓰는 아이에게 어머니는 "서커스와 광대, 곡예사도 나올 거야. 영화는 꿈이란다. 잊히지 않는 꿈"이라고 속삭인다. 하지만 막상 영화를 보면서 샘이 매혹되는 순간은 기차와 자동차가 충돌하여 탈선하고 산산조각 나는 파괴적인 장면이다. 자동차에 앉아 있던 사람이 날아가고, 기차 안 서커스 우리에 갇힌 동물들이 나뒹굴며 울부짖는다. 끔찍하고 무섭지만 그 장면에서 눈을 돌릴 수 없는, 빠짐없이 보고 싶어지는 매혹의 순간. 그래서 샘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비싼 기차 장난감 앞에 자동차 장난감을 놓아두고 충돌시켜 망가뜨린다. 아버지는 야단을 치지만 어머니는 샘이 왜 그랬는지 이해한다. 컴퓨터 엔지니어로서 현실에 충실하고 분석적인 아버지와 달리,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예술적 가능성의 싹을 엿본다. "얘는 자기만의 세상을 통제해 보려는 거야."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며 어린 샘은 아버지의 8mm 카메라로 무엇이든 찍어본다. 그러면서 그의 눈은 점점 카메라의 렌즈와 일치하게 된다. 감독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그러모아 영화를 만들고, 현실에선 자신이 쉽게 수리하거나 수정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상으로나마 통

제하고, 현실과 거리를 둔 채 한발 물러서서 관찰함으로써 타인들이 미처 못 본 것을 발견하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다. 샘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했고, 그래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던 순간에도 서럽게 흐느끼는 어머니와 달리 한걸음 뒤에 서서 할머니의 목에서 팔딱팔딱 움직이는 핏줄을 응시한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멈추는, 죽음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한다. 샘의 눈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일체감을 통해 가장 가깝게 맞닿으려는 욕구 대신, 역동하는 감정의 덩어리와 육체의 신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서커스에서 출발하여 영화계에 몸담았던 작은 할아버지 보리스(저드 허쉬)는 샘에게 작은 경고를 남긴 바 있다. "가족과 예술은 사람을 반으로 찢어놓지."

샘의 눈-카메라는 곧 가족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샘은 가족 모두와, 그리고 가족처럼 친밀했던 아버지의 동료 베니(세스 로건)까지 어울려 떠난 캠핑에서 찍은 홈비디오 영상을 편집하다가, 촬영할 당시 그 자신조차 내가 무엇을 보는지 알지 못한 채 담아냈던 은밀한 비밀을 발견한다. 어머니 미치와 베니 사이에 무언가 벌어지고 있다는 깨달음. 그는 처음으로 영화에, 카메라에 두려움을 느낀다. 카메라는 밝혀지면 안 되는, 알고 싶지 않았던 현실의 끔찍한 단면을 포착할 수 있다. 교묘한 편집을 통해 추한 현실을 오려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가상이 현실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질 따름이다. 샘은 가족을 배신한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붙잡아 두지 못하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행복하다고 믿었던 가족들이 나뉜 채 각자의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사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을 배우며 샘은 어른이 된다. 영화는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삶도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그 증거가 〈파벨만스〉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2023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

상담소의 2023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가 지난 11월 29일 열렸다. 이번 이사회는 차명희 이사장의 주재로 김의재, 조대연, 장명수, 김명순, 곽배희, 김영옥, 박영립, 김상용 이사 및 한미영, 최문원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개회, 전회 회의록 낭독, 안건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토의에서는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인사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2023년도 제2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직원재교육 및 자원봉사자 교육 겸해 열려

2023년도 제2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가 11월 22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상용 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배인구 위원(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현소혜 위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상용 위원장이 '민법에서의 징계권 삭제 – 그 의미와 한계'를, 현소혜 위원이 '근친혼 관련 규정 개정 검토'에 관해 발표하였다. 또한 곽배희 소장이 상담소가 주도한 가족법 개정에 있어서 동성동본 금혼규정 폐지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직원재교육을 겸해 열린 이번 위원회는 곽배희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응답,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공익소송 협업 구축을 위한 대검찰청 관계자 본소 방문

지난 11월 14일 대검찰청 정유미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이 상담소를 방문하여 곽배희 소장과 공익소송 협업구축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박향철 공판2과장과 박찬영 검찰연구관, 그리고 상담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출판부장 등이 배석하였다.

일본 교수단, 본 상담소 방문

11월 17일 니노미야 슈헤이 리츠메이칸대학교 명예교수, 쓰루오카 겐이치 공익사단법인 가정문제정보센터(FPIC) 전무이사, 이누부시 유키코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 등 일본 교수단 15명이 서울가정법원 60주년 기념국제 콘퍼런스(11월 15일) 참석 및 유관기관 방문 일정으로 한국에 온 일본 교수단은 특히 본소 방문을 강력히 희망하였는데, 10여 년 전 본소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의 의견에 의해 재방문을 원하였다고 한다.

본소 곽배희 소장은 일본 교수단을 맞이하여 환영사와 더불어 인사말을 하고 본소의 역사와 가족법 개정운동, 현황 등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본소의 상담 내용(통계), 동성커플 상담 여부, 가정폭력가해자 상담, 소송구조, 교육 프로그램, 외국인 상담, 보호출산제 도입 법 제정, 가족법 등 법교육, 법 개정운동과 관련한 방문단의 질의와 본소 곽배희 소장 및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다. 질의응답 후 방문단은 상담실 등 상담소를 라운딩하였다.

일본 교수단은 자국 법개정운동이 답보상태라고 소개하면서 본소가 주도한 가족법 개정의 놀라운 성과에 감명을 받았으며 향후 자국에서의 법개정운동에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조은경 상담위원이 배석하였다.

주한미국대사관 시민업무과 외교관 본소 방문

11월 24일 주한미국대사관 시민업무과 Abisola James 영사와 박소정 팀장, 장승희 담당관 등이 상담소를 방문하여 미국인과 한국/미국 이중국적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에 관해 상담소의 협조를 요청하고 더 적극적으로 상담소를 알리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본소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참석하였다.

자원봉사자 교육 및 모임

2023년도 자원봉사자 교육 및 모임이 지난 11월 22일 본소에서 열렸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8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민법에서의 징계권 삭제의 의미와 한계'(김상용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근친혼 관련 규정 개정'(현소혜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함께 점심 식사와 환담을 나누는 모임을 가졌다. 이날 교육과 모임에는 오랜 기간 상담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유문숙, 홍진범 자원봉사자가 참석했다.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지난 11월23일 본소 교육프로그램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부부대화법'을 주제로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부부는 철저하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어느 순간부터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대상이자 동시에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존재가 된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간 대화이다. 강사는 부부간 대화는 대화 자체도 중요 하지만 그 방법도 중요하다며 남성과 여성의 대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일방적인 대화보다는 쌍방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부정적인 대화를 지양하고 긍정적으로 꾸준히 표현하려고 노력하며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만 부부간 대화의 궁극적 목적인 마음을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의를 마쳤다.

참가자들은 대화에 있어서 내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그것을 적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쌍방향적 교류를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강의는 올해 진행되는 마지막 강좌였으며, 이 공개강좌는 새롭게 정비하여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2023년 11월 상담통계

총 건수 4,687			
법률상담 (3,887)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1,149	2,653	83	2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84	60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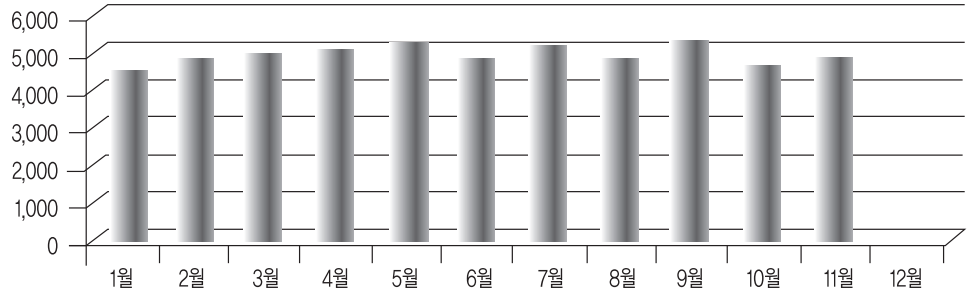
• 인터넷 정보 이용 133,721 건

2023년 11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687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887건(82.9%), 화해조정 584건(12.5%), 소장 등 서류작성 60건(1.3%), 소송구조 156건(3.3%)이었다.

법률상담 3,887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3년 10월에 비해 부부갈등(2.7%→2.9%), 이혼(18.1%→20.8%), 사실혼해소(0.8%→1.0%), 양육비(10.5%→12.1%), 인지(1.2%→1.4%), 친양자(0.4%→0.5%), 개명(1.1%→1.2%), 성변경(1.0%→1.4%), 가사절차(6.6%→7.0%), 임대차(0.2%→0.4%), 채권·채무(0.3%→0.4%), 민사절차(0.0%→0.2%), 민사기타(0.7%→0.8%), 형사절차(0.2%→0.3%)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887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149건(29.6%), 전화상담 2,653건(68.3%), 인터넷상담 83건(2.1%), 서신상담 2건(0.1%)이었다

2023년 월별 총건수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라 본소에서도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11.1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담원 가족법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1월 15일 엘타워에서 개최된 서울가정법원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였다. 27일 시사주간지 시사인과 재산분할에 관해 인터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5일에 서울가정법원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였다. 9일, 23일, 30일에는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1조정)의 이혼등 사건을, 10일에는 2단독의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곽배희 소장, 서울가정법원 기념식 참석

본소 곽배희 소장은 지난 11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서울가정법원 창설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고맙습니다

2023년 11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홍진범 님

· 야간상담을 해주신

방선영,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대학생 자원봉사

이고은, 박인아, 김지오, 이지민, 이재영, 김상은, 이현아, 정재은, 김영인, 한아름, 김지원, 이은세, 고원진, 전승희, 박진희, 손세민, 서민지, 남계목, 최성은, 안예빈, 강민서, 서혜린, 조은수, 한승헌, 최신양, 김정민, 홍준화, 서유진, 이혜원, 김민선, 김예지, 최지현, 송유림, 하유지, 이유정, 김혜진, 이준호, 방승현, 최준영, 이동희, 원서영, 최문경, 손예린, 장주원, 문정현, 신영혜, 전성희, 고세현, 박민제, 최민서, 정의헌, 김성은, 문시원, 노현정, 김다솔, 서현진, 나단비, 이양현, 류채현, 김선욱, 원지수, 이주현, 김연주, 한봄이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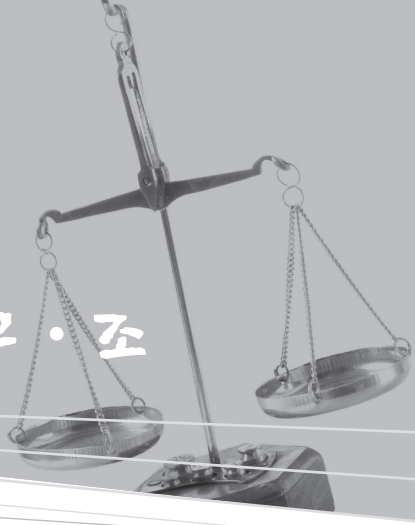
김용헌, 이승훈, 홍진범, 최정난, 이현혜, 천정환 님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미성년후견인의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법률구조 2023-1-142

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사건본인(남,10대)의 외조모이자 미성년후견인이다.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모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은 2022년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여 과거양육비 1,500만 원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수급비에 의존해 살고 있는데,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부산가정법원 2023. 11. 3)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원 **지원 2022느단**** 호 양육비 사건의 확정 심판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과거양육비 및 2023.4.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1,400만원을 20회에 분할하여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에 70만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이혼 등 판결

법률구조 2023-1-14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2017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자녀인 사건본인들(5세, 3세, 1세)을 두었다. 원고는 결혼 후 곧바로 임신하여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는 원고와 의논하지 않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하여 이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었고, 다툼이 심해지자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2022.11.18. 임신 중인 원고를 소파에 제압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11. 24. 원고의 뺨을 수차 때렸다. 피고는 11.24.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별거 중인데 원고는 이혼하고 자녀들을 본인이 양육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11. 2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1. 21.부터 2023. 11. 23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23.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 매달 말일에 지급하라.(이하 생략)

자녀를 유기한 후 양육수당을 착복한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법률구조 2023-1-137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청구인(남, 50대)은 사건본인(남)의 외조부이다. 상대방(여, 20대)은 청구인의 자녀이자 사건본인의 친모이다. 2019년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보육시설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건본인을 집으로 데려와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다. 상대방은 한 차례씩 연락이 되었다가도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이 끊어지길 반복하더니 2020년경부터는 연락이 두절 되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음에도 사건본인 양육을 위하여 지급된 양육수당을 사용하고, 사건본인 소유의 통장을 말소시켰다. 2022년경 사건본인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친권자인 상대방의 연락두절로 병원 치료, 보험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청구인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할 예정으로 사건본인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상대방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9. 21.)

1.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23. 11. 30.까지 재산목록(기준일: 2023. 9. 30.)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24. 11. 30.을 시작으로 매년 11. 30.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9. 30.)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포기, 단순승인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탁아동의 성과 본을 위탁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법률구조 2023-1-249, 250

담당 : 천정환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내용 : 사건본인(남)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으로 일시보호소에서 보호되던 중 가정위탁 결정을 받았다. 위탁모는 생후 4개월 때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친가족 같이 지내왔다. 향후 사건본인을 입양할 계획으로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여 위탁모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건본인은 위탁모의 다른 세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보통의 남매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 위탁모는 사건본인의 성을 본래의 성이 아닌 다른 자녀들과 같은 성으로 불러주고 있다. 그러나 병원 등을 방문할 때면 행정상 본래의 성으로 표기된 문서를 사용하고 있어 여러 불편이 있고, 사건본인의 성이 다른 자녀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거나 취조와 같은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위탁모는 사건본인이 다른 자녀들과 같은 성을 가지고 온전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보다 편안하고 일상적인 성장기를 보내고, 불필요한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2023-1-249 : 결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9. 14.)

1. 청구인(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후견

인의 성 및 본, 이름을 변경하기 위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청구인(미성년후견인)은 제1항의 소송결과를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3-1-250 : 결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10. 5.)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성을 "○"으로, 본을 "□□"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237

담당 : 박다혜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생맥주 술집을 창업하였다. 장사가 곧잘 되어 지점을 늘리며 확대운영을 하였고, 몇 년 뒤 지점을 처분하고 발생한 약 5억 원의 자금으로 단기 사금융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1997년경 IMF 외환위기사태가 찾아왔지만 신청인에게는 예외였으며, 오히려 급전을 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 수익이 더 커졌다. 그렇게 충분한 자금력을 모을 수 있었던 신청인은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였다. IMF 외환위기도 극복한 신청인은 자만해져서 주유소 영업을 직원들에게 맡기며 신경을 안 쓰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였다. 그러다 직원의 부정으로 주유소에 2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었고 사업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신청인은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주유소와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였다. 이후 생활고를 겪던 신청인은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교도소에 3년간 수감 되기도 하였다. 출소 후에는 이렇다 할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사업실패로 20억 원이 넘는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11.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연대보증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255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0대)은 20대부터 사업을 하였지만 생각처럼 풀리지 않아 폐업하였고, 꽤 오랜 시간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하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백화점에서 신용카드 영업을 하게 되었고, 지방을 다니며 약 6년 간 일을 하였다. 신청인은 영업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렸는데, 업무 특성상 집에 자주 들어가지 않다 보니 나중에는 배우자가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자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렇게 가정이 파탄이 난 신청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았다. 그러다 친동생의 집에서 무상거주를 시작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생계가 더욱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다. 신청인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행히 빚은 지고 있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신청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채무액은 무려 3억 8천만 원에 달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며 약 80만 원의 수급비를 받고 있던 신청인으로서는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채무였다. 결국 고심하던 끝에 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11.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3년 12월 교육부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 · 중 · 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연수기간 : 2024년 1월 16일(화) ~18일(목), 1일 5시간, 3일간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연수대상 : 서울 · 전국 초 · 중 · 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교과과정
- 가족법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 이혼 관련 법률 / 부모 · 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 · 유언 · 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 일시는 추후 공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 · 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대면강의
* 일시 및 주제는 추후 공지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 ·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일시 : 2024년 8월 중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부 : 부담없이
정 : 정직하게
방 : 방심말고
지 : 지혜롭게

생활법률강좌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 • 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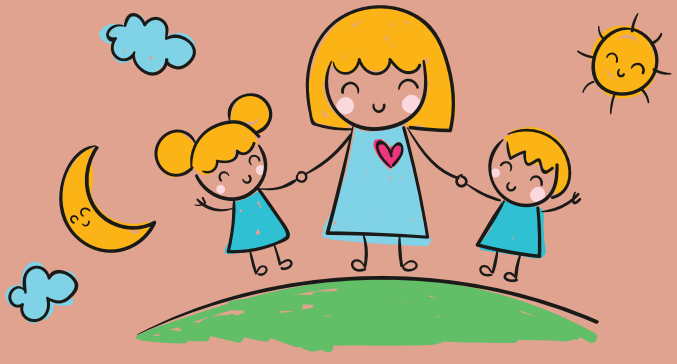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일 시 ▶ 2024년 8월 중

대 상▶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1.「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